하늘 애인 위한 감동이벤트

(레19:9~37)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애인 위한 감동이벤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애인위한 감동이벤트'
'애인'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사전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서로 애정을 나누며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서 애인을 정의하자면 애인은 그의 기쁨을 위하여 감동적인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단 애인이 되었으면 애인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쨌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아직 애인이 아닌 것이지요. 그 정도로 애인에 대한 마음이라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인 존재자체가 이미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줌, 받음이 되는 것이고 존재자체가 기쁨이고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중에 잉꼬부부로 소문난 최 수종, 하 희라 씨를 방송인 이 경규 씨가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이벤트를 너무 자주 많이 해주니 다른 남자들이 아내보기가 민망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지고

드세져서 공공의 적이라는 얘긴데, 예를 들면 15주년 결혼기념일에 최 수종 하 희라 부부가 청계산 등산을 했답니다. 그 해 첫 눈이 내리는데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15주년 결혼기념일과 내 아내 하 희라를 사랑한다.'라는 플랫카드가 걸려있고 기념 케이크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 희라 씨는 참 복도 많아요. 감동적이었겠지요. 아마 그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청계산에 올라가기 전에 대충 결혼기념을 위한 저녁외식을 예약했다고 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또 대형 크레인을 옥상에서 타고 내려와서 프러포즈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해주는 게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너무 차원이 다르니 감이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저로서는 두 번 죽었다 태어나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이분이 하시는 이유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벤트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귀찮은 일인데 귀찮은 줄 모르고 하는 이유는, 그 아내가 플랫카드를 보고 케이크 보고 청계산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동하는 몇 분에 지나지 않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서 이 이벤트를 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 인격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는데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에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똑같은 인격인데 완전히 반대모양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인 상태의 존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지성소'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성소'라는 말을 가져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 분에게만 있는 줄 알아서 그 분을 향하여 하늘로 가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거룩이 요구됩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거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면 사람관계에서 거룩하고 사물관계에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거울처럼 너희가 거룩한가 아닌가를 들여다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고 읽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상생활의 규례들을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규례들을 보면 지금 나의 존재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가 어겨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까지의 얘기를 했어요. 육체 의존형 인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것들을 담고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에 개악적인 진화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짐승과의 교합이고 종교적 음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행동하지 않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경부선을 왜 경부선이라고 합니까? 나는 대전밖에는 가지 않았는데 왜 경부선을 타고 가야 됩니까? 끝점을 포함시켜서 도로 이름을 만듭니다. 경인선은 인천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경춘선은 춘천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같은 막장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가 도중에 그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느라고 거룩한 사람의 반대로 육체 의존형 인간의 삶의 형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규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잠언에서처럼 서로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툭툭 던지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37절까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거의 모든 일상적 규례가 얘기되고 나면 항목마다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타나서 19장 전체에 16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적 규례의 항목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삶의 내용은 대인관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채워지고, 대물관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채워지고, 대인대물이 통합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대할 때든지 사물을 대할 때든지 상황을 대할 때든지 지금 내가 그것을 대하고 있는 그 순간은 나와 상대방과의 두 존재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다 대물관계 대인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인데 너 자신도 그렇고 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과 사물도 그렇고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스스로 있는 자이고 모든 대인 대물관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우리 귀에 대고 선민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은 나 자신도 그렇

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나 사물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거룩함의 특징 중의 하나가 청결함입니다. 어떻게 청결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는 것, 나타나야 될 것이 나타나야 될 방법과 나타나야 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있게 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1: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돌아가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했다가는 뺨을 맞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물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해서 가난해지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의 마음에 기쁨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사람인 선민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인대물관계에서 모든 순간이 결국은 이벤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 희라 씨를 기쁘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귀찮고 어려운 일들을 감행하는 최 수종 씨의 마음처럼 모든 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스스로 있는 자로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이벤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선민은 이벤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 수종 씨처럼 결혼기념일의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벤트라는 것이지요. 오늘 9-37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일상적 규례들의 항목 하나하나는 다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내에게 왜 이벤트를 해주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해줄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저도 말씀 끝나고 나면 아내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질 것 같은데 '그럼 넌 사랑이 없어서 평생 동안 이벤트 한 번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벤트를 하려면 귀찮음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마음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대인관계 대물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와계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분을 위한 이벤트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께 감동의 이벤트로서 사람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돈이라든지 명

예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할 때 우리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벤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벤트로 만들 것이냐? 아내와 남편관계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장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잘 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사장님께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롬14:7-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다 알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일상적으로 규례들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이벤트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우리가 읽곤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특이해요. 6-8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내리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모든 일이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총괄적인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결국 내리사랑이라야 되는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고 화목제까지의 모든 얘기는 이 내리사랑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부모사랑부터 대인관계가 시작되는데 부모사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 부모사랑의 그 다음 얘기들이 형태를 달리 하면서 나타납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형태를 달리 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부모사랑부터 내려가서 얘길 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서 얘길 한 이유는, 부모사랑부터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내려가는 이 나의 자연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위로 치받는 사랑, 치사랑, 위를 향한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부모공경부터 얘길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따라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 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린 화목제의 고기는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삼일 째는 무조건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시는데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먹는 것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화목제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태워드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로 기쁨을 찾으려 했던 내가 죽는 것이고, 나머지 고기는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공경에서 방향 틀고 안식일에 목표정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얘기를 화목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면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나와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주 같이 보이는 일들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생기고 감사의 체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고기는 하루만 먹으라는 얘기는 하루 밖에는 가지 않아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먹고 감사가 나오면 이틀째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먹고, 다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배터리의 에너지가 모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서원제는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한다.'는 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원제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이루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화목제가 서원제와 자원제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다 보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애인과 깊은 관계가 돼서 애인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애인 때문에 기쁠 때 애인에게 감동의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바라볼 때 다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이 마음이 이틀밖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일 째는 다시 하나님을 먹어야 자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서원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의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라야 사람과의 만남과 사물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기 위한 이벤트를 행하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만나면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멋진 아들딸을 만든다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과의 만남에서 이벤트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고 화목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면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가는데, 감사제는 하나님을 먹고 모든 만물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루밖에는 가지 않으므로 그 다음날 되면 또 먹고 이틀째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먹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나는 돈도 없고 병들고 늙었고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니 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교회 가서 봉사부장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살면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규례를 말씀하셔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선 너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될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이벤트로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행하는 행동들이 다 사냥이 돼버립니다. 내 배를 채우려는 사냥이 돼버립니다. 내 배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내가 관계하는 모든 대인관계 대물관계는 다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을 내셨으므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부모공경, 안식일 지킴, 헛된 것을 향하지 말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기, 그리고 화목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들이 나타내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로 이루어내신 것이고 우리 마음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세상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울 것도 없어요.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이벤트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산에 플랫카드를 걸고 결혼15주년을 준비한 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느냐? 결국 십자가 생활화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승천까지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게 해주시고 아니 같이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으니 내 마음이 같이 주님과 묶여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늘까지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들과 하나님아버지 사이에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이 아버지로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주님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아버지와 아들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기다립니다. 무슨 별것을 하라고 합니까? 돈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사업문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사업장에 나가면 이제부터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감동의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를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성경의 모든 계명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명 이외의 나에게만 이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과 뜻도 원하심도 다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늘 애인을 위한 이벤트의 삶이 바로 선민이고 그런 이벤트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주님의 십자가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함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음을 뜻하는 거룩, 가장 평안함을 뜻하는 거룩을 기어코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오니 이 일이 날마다 반복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모든 대인대물관계가 스스로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감동의 이벤트의 연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